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⑮ 싯달타 태자, '유성출가'하는 날



▶ 한줄요약
잠의 신 오소만이 성안의 주민들을 잠재우자 정거천은 허공에서 내려와 싯달타 태자에게 출가를 청한다. 사천왕과 제석천의 호위를 받으며 출가를 하는 싯달타 태자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자후를 한다.

"보리 못 이루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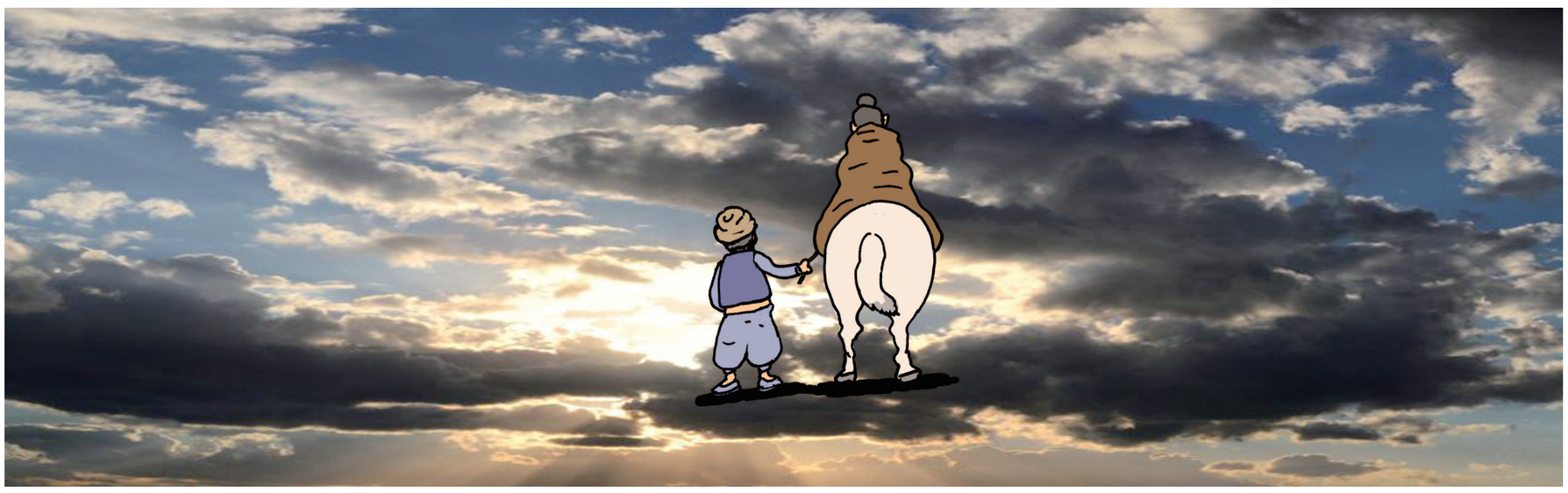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잠의 신 오소만, 주민 잠재우자
정거천, 태자에게 출가를 청한다
사천왕과 제석천이 태자 호위해
싯달타 "正覺 이루겠다" 사자후

오소만이라는 잠의 신이 아름다운 채녀들을 잠들게 한 뒤 추하고 적나라한 모습을 목도한 태자는 아름다움이 환영이나 환상에 불과한 꿈같이 덧없는 것이라 갈파한다. 그리고 출가를 실행한다. 그때 이미 태자의 출가를 알고 내려온 여러 천신들이 그를 호위하며 장엄하는 모습이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정거천과 태자의 출가 선언

그때 정거천이 허공에 와서 태자께 사뢰었다.

"가사이다. 시절이어이다. 세간에 오래 즐거이 계시지 못하시리니 오늘날 일체 제천이 원하옵건대 출가하시어 성인의 도리를 배우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태자께서 일어나실 적에 앉아 계시던 보배로 만든 평상(寶牀)을 돌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맨 마지막에 오욕(五欲)을 타고 태어난 곳이다. 오늘날 이후로 다시는 태어나지 아니 하리라."

태자가 오른 손으로 칠보로 된 휘장(七寶帳)을 쳐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셔서 동쪽으로 돌아서서 합장하시며 일체 제불을 염불하시고 우러러 허공과 별을 바라보셨다.

생로병사의 실상을 자신이 배우가 되어 사문유관을 진두지휘한 정거천이 태자에게 드디어 출가할 시간이 왔다고 알리는 장면이다. 그 말투가 지극히 곡진하여 15세기 화법을 최대한 살렸다. '가시지요. 출가할 시간입니다' 보다 '가사이다. 시절이어이다' 라는 격조높은 선조의 말을 되살렸다.

태자의 결연한 모습도 정말 실감난다. 태자의 자리인 보배로 장엄한 보상에서 일어나 다시는 윤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다. 세간의 부귀영화의 상징인 일곱 가지 보배로 꾸민 장막을 거두고 나와 일체 제불을 염송하며 합장한 채 하늘과 별을 바라보며 서원하는 장면이 경건하다.

사천왕 · 도리천 제석 호위 모습

지국천왕(持國天王)이 건달바들 일체 권속 데리고 풍류하여 동방에서 와 동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지국천왕은 건달바를 거느린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욕계육천의 네 하늘의 동방을 관장하는 지국천왕은 선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어 항상 인간을 고루 보살피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건달바를 협시로 거느리며 그가 주관하는 일체 무리를 데리고 태자의 동쪽 곁에 늘어섰다. 건달바는 '건달' 의 어원이 되는 말로 음악의 신이다. 권속은 'parivāra' 의 의역으로 '뜻을 같이 하는 자 · 보좌하는 자 · 시중드는 자 · 따르는 자 · 종속되어 있는 자' 를 뜻한다. 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증장천왕(增長天王)이 구반다(鳩槃茶)들 일체 권속을 데리고 보병(寶甁)에 향수(香湯) 담아 잡고 남방에서 와 남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향탕(香湯)은 향을 끓인 물이다. 구반다(鳩槃茶)는 독(毒)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니 증장천왕이 거느린다.

남쪽의 사천왕인 증장천왕은 중생의 이익을 넓고 길게 만드는 천왕이라는 뜻으로 불법(佛法)을 보호하면서 만물을 소생시킨다. 특히 증장천왕의 오른 팔 구반다는 지난 번 궁궐 내 모두를 잠들게 했던 오소만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의 정기를 먹는다는 신으로 말 머리에 사람 몸의 형상을 하고 있다.

광목천왕(廣目天王)이 용왕(龍王)들 일체 권속 데리고 여러 구슬 가지고 서방에서 와 서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광목천왕이 용왕을 거느린다.

서쪽을 관장하는 광목천왕은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엄으로 불법(佛法)을 보호한다고 한다. 용을 호위무사로 거느린다.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야차(夜叉)들 일체 권속 데리고 불구슬(火珠)과 등촉(燈燭)을 잡고 갑옷 입고 북방에서 와 북쪽 곁에 합장하여 섰다. 다문천왕이 야차를 거느린다. 화주(火珠)는 불 구슬이니 불같이 밝은 것이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하여 다문이라고 한다. 권속을 대표하는 야차는 산스크리트 약샤(Yakṣa)에서 나온 말로 여성은 약시(Yakṣī)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섭고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등장한다. 특히 약시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산치 대탑에 부조되어 있어 놀라웠다. 〈월인천강지곡〉은 사천왕의 호위와 장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오십일장

분과 연지와 꽃으로 꾸민 각시 세간의 풍류를 태자께 보여드리니

보배병과 불구슬(火珠), 불성이 비칠 출가 날에 하늘의 풍류 어떠하시리.

석제환인(釋提桓因)이 제천(諸天)들 일체 권속 데리고 화만영락(花鬘瓔珞)과 당번보개(幢幡寶蓋) 잡고 도리천에서 와 허공에 합장하여 섰다. 석제환인은 제석(帝釋)이다. 보개(寶蓋)는 보배로 된 개(蓋)이다.

석제환인은 제석천을 의미하며 도리천의 왕이다. 그러니까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과 꼭대기의 도리천에 사는 제석천왕이 33천의 천신들을 거느리고 태자 출가에 호위 신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마치 〈삼국유사〉의 탑상편에 '오대산 오만진신' 이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투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을 영화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부 차닉이와 애마 건척이

그때 불성(沸星)이 돋아 달과 합해지거늘 제천들이 매우 크게 말하였다.

"불성(沸星)이 벌써 합하였으니 이제 출가할 시간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다시 사뢰었다.

그때 오소만(烏蘇慢)이 와 있어 성 안의 사람들이며 공작이며 새들까지 매우 피곤해하며 자고 있었다. 오소만은 가위누르다 하는 뜻이니 이것은 구반다(鳩槃茶)인데 졸음의 신령이다.

'불성(沸星)' 은 상서로운 별로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귀수(鬼宿)라고 한다. 여래가 성도와 출가를 모두 이월 팔일 귀수가 어우러질 때에 하므로 복덕이 있는 별이다.

다시 구반다가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으로 나온다. 채녀들을 잠들게 해 흐트러진 모습을 본 태자가 출가결심을 굳혔는데 이번에는 사람 뿐 아니라 공작과 새들까지 잠들게 했다는 것이다. 모든 유정들을 잠들게 하는 신이 오소만이다.

태자께서 마부 차닉(車匿)이를 부르니 준마 건척(健陟, 건특)이 안장을 지어 오라 하시니 그때 말도 울고 차닉이도 울었다. 차닉은 종의 이름이니 싯달타 태자와 같은 날에 태어났다.

태자께서 다 울지 말라 하시고 방광하셔서 시방을 모두 비춰시고 사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과거의 부처께서 출가하심도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태자가 말 타고 나가시니 제천이 말의 발을 받치고 차닉이 따라서 잡으며 개(蓋) 받치고 범왕은 왼쪽에 서시고 제석은 오른쪽 옆에 서시고 사천왕이 호위(侍衛)하여 허공으로 성 넘어 나가셨다.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보리(菩提)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제천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오십이장

마부 차닉과 말 건특이 태자의 뜻을 얼마나 알리오 어느 누구를 더불어 가시려뇨

차닉이와 건특이 태자 태어나신 한 날에 태어나므로 이 둘만을 더불어 가시니

오십삼장

지나간 무량겁에 수행이 익으셨으므로 보리를 못 이룰까 하는 의심이 없으시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시려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아니 오리라 맹서하시니 이다

오십사장

시방세계 밝고 사자의 소리로 말씀하시고 성을 넘어 산으로 향하시니

사천왕이 뫼시고 말의 발을 제천이 받치고 허공을 타고 산에 이르르시니

세간의 이별이다. 태자와 같은 날 태어나 동고동락하던 마부 차닉이를 부르니 준마 건척(건특)이도 슬퍼하며 따라 울었다는 이야기. 왠지 나도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울컥해진다. 과거의 부처께서도 이와 같이 출가하셨다는 사자후를 하고 말을 탔는데 제천이 '말의 발을 받치다(捧擧馬足)' 라고 나와 있다. 왜 말의 발을 받쳤을까.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 보면 성문을 열고 말발굽소리를 내면 잠든 사람들이 깰까봐서였다.(念開門當有聲°天王維睒, 久知其意) 한문 경전 대조의 중요성이다.

그렇게 범천과 제석천은 좌우 협시를 하고 사천왕이 호위하며 성문을 열지 않고 공중으로 성을 넘어 출가하셨다. 팔상도의 세 번째 그림 '유성출가(逾城出家)' 의 장면을 그리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자후. '보리를 얻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야말로 금강같이 굳은 서원에 제천이 찬탄하였다. 〈석가씨보〉에는 더욱 상세하다. '팔고를 끊지 못하고 법륜을 굴리지 못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不斷八苦, 不轉法輪, 不成菩提要不還°此天讚善哉)' 이것이 조어장부의 기개이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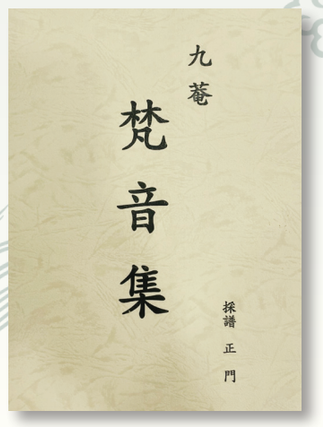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수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구암스님 범음집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